

故 유천호 강화군수 영결식 엄수...500여명 추모물결

“군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고민하던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故 유천호 강화군수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9시 30분 강화군청 광장에서 엄수됐다.

故 유 군수는 지난 9일 향년 72세의 나이로 별세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故 유 군수의 장례는 장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과 박승한 강화군 의회의장, 박용렬 강화군원로자문회의장이 맡아 5일간 강화군장으로 추진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故 유 군수의 배우자인 이인현 여사 등 유가족과 시의원, 군의원, 장례추진위원, 공직자, 조문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윤도영 권한대행의

영결사, 박승한 군의회의장의 추모사,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의 추모사, 강종훈 장례집행위원의 조사, 불교대표의 왕생 축원, 기독교 대표의 추모 기도 이어 유족대표의 인사와 집무실 이동 순으로 진행됐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영결사에서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말씀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군수님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故 유천호 군수님과 함께 해서 행복했고, 평온한 영면을 기원드립니다”고 마무리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고인의 유해는 강화군 내가면에 위치한 해누리공원에 안장됐다.

한편, 고인은 ‘막힌 길은 뚫어서, 없는 길은 만들어서 나간다’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있다. 인천시와 중앙부처, 국회까지 직접 찾아다니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며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강화군은 정주여건 개선, 농어업 경쟁력 확보, 관광자원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인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등 강화군 미래성장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故 유천호 군수님과 함께 해서 행복했고, 평온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사안 논의 강화군, 윤도영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강화군은 지난 9일 유천호 군수의 사망으로 보궐선거에서 차기 군수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윤도영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유천호 군수의 궐위에 따라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 윤도영 권한대행 주제로 영상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전원을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2024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도영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전환_긴급회의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 안정 사업 대거 반영 강화군, 올해 첫 추경 6,870억 원 편성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은 6,87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6,612억 원 대비 258억 원(3.9%)이 늘어났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 삶에 직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78억 원) ▲방범용 CCTV 및 LED 보안등 구축 사업(8억 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20억 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 사업(10억 원)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 조성 사업(9억 원) ▲화개정원 온실 조성 사업(8억 원) ▲외포리 쉼터 조성 사업(7억 원) ▲군도 12호선(탑재~어류정항) 도로 확포장 공사(7억 원) ▲신문 제4공영주차장 및 황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4억 원) 등이다.

유천호 군수는 "연두 방문에서 수렴된 군민 건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 예산에 반영했다"며, "추경 사업을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에 대응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체감 행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강화군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최종 확정된다.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군,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시행

강화군은 성과 중심의 평가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성과지표 고도화에 따른 난이도 향상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외부평가단 도입 ▲적기 추진을 위한 과정평가 도입 ▲부서별 근무 환경 반영으로, 성과지표의 달성도뿐만 아니라 노력도 등 부서의 전반적인 사항까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군은 달라진 부서평가 추진을 위해 지난해 성과 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화군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종합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업무 평가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중심의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기자

강화군,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화군 관광개발 현장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8일 강화군을 방문했다.

군은 유 장관에게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문체부가 지난 1월 4일 도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5만~30만㎡)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방식도 완화하여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거친 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불합리하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 인구감소 위험지역인 강화군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화군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배준영 국회의원도 지난 2월 21일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에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유 장관의 전격 강화 방문이 성사됐고, 유 장관은 석모도와 교동도 등 강화군의

유명 관광개발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및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개선된다면 강화군 내에서도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가 현행 50만㎡ 이상에서 5만~30만㎡으로 대폭 낮춰지게 되고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을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강화군의 특성상 청장년층이 정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화개정원 전망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

유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

강화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5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의 근간이 되는 3월, 집행기관에서 중장기 정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강화군의회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학도 110명 새로운 배움의 도전 강화군, 노인대학 입학식...“꿈은 늙지 않는다”



강화군은 6일 (사)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주관으로 ‘제53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8년 강화경로대학으로 시작한 강화군 노인대학에는 45년간 4,000여 명이 입학했으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강화군은 노인대학의 활성화와 학습 지속성을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노인대학 2학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입학생이 늘어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날 입학식에는 노인대학 신입생 110명과 입학 축하하는 내빈 및 입학생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채용 노인대학장은 “강화군에 배움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대학이 지역사회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최대 30만 원 지원

강화군은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감량기 총 105대를 지원하며, 구매 금액의 50% 범위로 최대 30만 원 한도(1가구당 1대)까지 지원한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제품은 단체표준(한국 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Q-마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 1개 이상의 인증 제품이다.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에서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해 설치한 뒤, 설치보조금을 군으로 교부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 보조금 결정이 통지되면 대상자에게 지원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구비 서류를 지참해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32-930-3338)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장학회, 올해 장학기금 150억 원 조성 완료

고교·대학생, 예·체능 특기자 우수인재 181명, 총 3억 4170만 원 지급



강화군 장학회 장학금 전달



강화군 장학회 장학금 전달



강화군 장학회 장학금 전달



강화군 장학회 장학금 전달

강화군장학회(이사장 이상설)는 29일 명진웨딩홀에서 '2024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고등학생 및 대학생 181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3억 417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회는 학업성적 우수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170명(고등학생 70명,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대학생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을 전달했으며, 선발된 대학생 중 일정 성적 유지자에게는 하반기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체능 특기자 11명에게도 장학

금을 지급하여 다양한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재)강화군장학회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총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2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칠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2021년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당초 100억 원이었던 목표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올해 예산에 편성된 30억 원이 추가 적립되

면 150억 원조성 목표를 달성한다.

향후에는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설 이사장은 "장학기금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업에 열중하고 노력을 경주하여 강화군 발전을 이끌 훌륭한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교육지원청, '세입금 납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특 예산 방법 및 세입금 수납 방법 개선을 통한 온라인 납부로 납부자의 편리함 증대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은 3월 1일부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세입금 거치계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강화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유 계좌는 고지서 납부 외 입금 방법이 없는 공공예금 계좌로 세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납부자가 종이 납입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야 납부가 가능하였다.

은행 방문으로 인한 납부자의 시간 소요가 크고 고지서, 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과 주문도, 교동도 등 도서벽지 지역의 은행 방문의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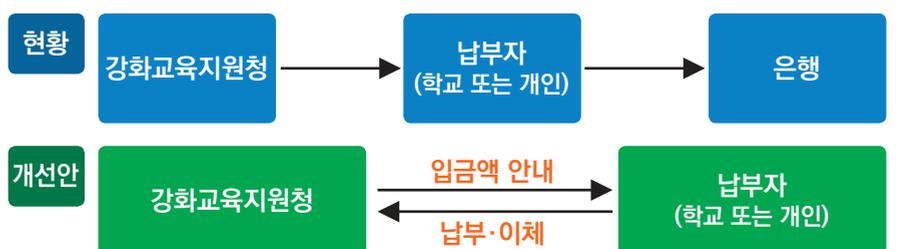
"강화교육지원청 교특 예산 반납 및 세입금 수납 방법 개선 계획"은 납부자가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입금 거치계좌를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납부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 이후, 납부자는 계좌번호를 안내 받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체(e교육금고)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금 대상은 (1) 예산 반납액, (2) 퇴직근로자 정산금 등 인건비 환수금, (3)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토지 및 건물 임대 수입, (4) 공사 위약금(지연배상금 등), 사용료수입 등이 있으며 고지서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활용이 가능하다.

김성환 강화교육청 교육장은 "교육청 부서별로 개선될 수 있는 업무들을 더 발굴해서 학교가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최벽하 기자



양도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어려운 이웃 찾아 사랑의 간식 꾸러미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헌 옷 모으기 활동 및 월례회의 개최



양도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취약계층을 위한 헌 옷 모으기 활동 및 월례회의 개최



양도면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 찾아 사랑의 간식 꾸러미 전달

양도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장 고광순, 부녀회장 김애경)가 지난 8일, 양도면사무소에서 사랑의 헌 옷 모으기 활동과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 25명은 이른 아침부터 양도면사무소 재활용 집하장에서 마을별로 모아두었던 헌 옷을 챙겨 선별 작업을 실시했다.

선별된 헌 옷은 강화군 새마을협의회와 재활용 업체로 전해져 구제매장이나 국외로 수출되고, 판매한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양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애경)가 지난 8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12명은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3가구에 달걀, 요구르트 등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월례 회의에서는 관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생활환경 점검 등 새마을 나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광순 양도면 새마을협의회장과 김애경 부녀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보호와 이웃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며, “이번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을 각 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순규 양도면장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헌 옷 수거에 함께한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나눔의 온기가 지역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동면, 리별 확대지도 배부로 이장 업무 효율성 UP!



교동면, 리별 확대지도 배부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특수시책으로 관내 리 별 확대지도를 제작해 배부했다.

기존 면사무소에 비치된 지도 및 현황도는 대부분 1/5,000 수치 지형도로, 글자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웠다. 또한, 재난 상황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든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작된 리 별 확대 지도는 비교적 식별이 수월한 1/2,500 수치 지형도로, 분할·합병 등 최근 지적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현재 각 리 별로 배부해 마을 회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휴대도 가능해 이장은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면정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이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업무를 하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동면만의 특수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형태 교동면 이장단장은 “이장 업무에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면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동면 면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면,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 실시 지진 발생 가정안 대피 시설 이동 훈련 및 동영상 강의 시청



양사면, 지진 대비 민방위 훈련

양사면(면장 이지영)이 지난 6일, 교산2리 주민 대피시설에서 2024년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의 일환인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지역민방위대장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진 발생 시 주민 대피 시설로 이동하는 훈련과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한 동영상 강의 시청으로 이뤄졌다.

이지영 양사면장은 “모든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이 위기와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대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가면 외포1리 주민 일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외포주민 성금 기탁

강화군 내가면(면장 조영진) 외포1리 마을 이장, 노인회, 부녀회 등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100여만 원을 관내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외포1리 최정분 부녀회장은 “이번 성금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영진 면장은 “나눔에 동참해 주신 외포1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원면 주민, 익명의 기부로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

강화군 선원면(면장 서광석)에 거주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11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자는 경제가 어려운 요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면서도 이름을 알리는 것은 한사코 거부했다.

서광석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매년 기부해 주시는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해 따뜻한 선원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받은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화군,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저출산 극복 위해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 모집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4년 2월 13일 - 모집종료시까지 관측순 다름 (여성, 남성 모두 대상자 가능하여 조기모집에 예상됨)	지원내용 3개월간 한약 처방(120만 원 상당) *본인부담금 100만(차액보상금 제외)
모집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남녀 250만 원 이상은 포함)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격 -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한의학용, 침구기반 의료 행위 미려지 받은 영 거무값이 없는 자 - 치료기간 동안 양방보드생체술사람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양력난임진단, 조기태반, 유산, 임신중절 등 회복하고 모두 신청가능	구비서류 난임진단서(난임여안임부 포함), AMH, 양력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민원봉사실 영유아정책과 출산지원팀 Tel. 032-440-3223 민원봉사지원센터 Tel. 032-431-984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한의학사회

강화군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선착순으로 4명 모집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뿐만 아니라 정액검사 이상 등의 결과가 나온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인천시 지정 한의원 87곳 중 대상자가 치료기관을 선택해 6개월간 한약 치료(1인당 120만 원) 및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난임 치료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 내 행복한 임신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930-4068 홈페이지 참조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인천 상수도본부, 소방본부와 상수도 정보 공유해 빠른 진화 돕는다

수운영관리 시스템 활용해 일선에서 원활한 소방용수 조달지점 판단가능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소방본부와 협력해 화재현장 인근의 상수도 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 주민의 물 공급 불편과 소방본부의 소방 업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에 사용되는 수운영관리분석 시스템을

소방본부와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화재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용 현장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소방본부에서도 기존에 소화전 인근 상수도의 유량, 수압, 탁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술적 협력은 일선에 투입된 소방본부 대원이 원활한 소방용수 조달이 가능한 지점을 판

악할 수 있어, 화재 진화작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소방용 현장지원시스템은 두 기관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했다.

상수도본부는 수운영관리분석시스템 도입에 앞서 활용 방법 안내를 위해 소방본부 1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새 시스템의 빠른 적응과 효율적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용수 조달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장시간 소화전을 사용하면 수도관의 수압이 떨어져 주변의 수용가에서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등 지역 주민의 불편 상황이 발생해 왔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이 대형화재 현장에서의 대응력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방본부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전국 최초 「튼튼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 사업」개시

동행 가족 없고 거동 불편 대상자에 차량 및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 발굴을 위해 3월 4일부터 「튼튼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면서 동행 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신규 장애인등록을 위한 차량 및 의료기관(병원) 방문 동행을 군·구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지원해 준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대상자와 병원 동행 날짜 협의 후 해당 날짜에 맞춰 동행 및 차량을 지원하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병원 접수·진료·서류발급 등을 도와준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원하지만 동행 가족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미만의 인천시민으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적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정으로 방문해 거동 불편 유무 등을 판정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장애 등록을 위한 차량 및 의료기관(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부담이며, 1인당 최대 4회까지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등록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

연금·수당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고 동행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좀 더 수월하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기고

이경수

"향교와 서원 그리고 총렬사"



강화향교(출처 강화군청)

향교 이야기

지난 57호에서 총렬사의 성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총렬사 수직방과 전사청에 관해 조금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향교와 서원의 개념과 건축 구조부터 검토할게요. 총렬사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향교(鄕校)를 한마디로 풀이하면 옛날 학교입니다. 고려시대에 처음 생겼습니다. 강화향교와 교동향교가 세워진 것도 고려시대입니다. 고려를 이어 조선의 지방 학생들도 향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는 향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경향 각지에서 모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경향(京鄕)은 서울과 지방, 서울과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교는 향(鄕, 지방)에 있는 학교(校)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경우 한양 학생들은 4부학당(四部學堂)에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지금 양천향교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에 양천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그때 양천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한양과 별개의 지방인 양천현이었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은 서당에서 기초학문을 배우고 향교나 4부학당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과거(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성균관에서 공부를 더해 과거(대과)에 응시했습니다. 원칙이 그랬어요. 대략 비교하면, 조선시대 향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단계쯤 될 것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한 교육 기관이니까 국공립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향교는 학교이면서 사당이기도 했습니다.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을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지무지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100명쯤 됐어요. 지금은 간소화해서 공자와 사성(四聖, 안자·증자·맹자·자사) 그리고 아국십팔현(我國十八賢, 설총, 안유(안향), 김굉필, 조광조, 이

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준길,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이연적, 김인후, 성훈, 조헌, 송시열, 박세채)만 모십니다. 전국 대부분 향교가 이렇게 모셔요. ‘아국십팔현’을 ‘동국십팔현’이라고도 합니다.

향교가 학교이면서 사당이다 보니 건물 배치도 그에 맞게 했습니다. 향교 영역 전체에 담장을 두르고

내부에 또 하나의 담장을 설치해서 교육공간과 사당공간을 구분했습니다. 외부 담장 출입문이 외삼문이고 내부 담장 출입문이 내삼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의 향교가 뒷공간을 사당, 앞 공간을 학교로 썼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적지 않으나 향교 건축 배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외삼문 들어서면 정면에 명륜당(明倫堂)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명륜당에 기거하며 학생을 가르칩니다. 명륜당!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사람의 도리[倫]를 밝히는[明] 집이라! 원래 교육이 이래야 하는데 오늘날 교육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륜당 앞 좌우로 건물이 두 채.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먹고 자며 공부합니다. 일종의 기숙사인 셈이죠. 그런데 강화향교는 명륜당 있을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신 서재 바깥쪽에 명륜당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바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향교의 내삼문을 통해 뒷공간으로 가면 사당 영역입니다. 중앙에 대성전이 있고 대성전 앞 좌우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있습니다. 보통 대성전에 공자와 사성을 모시고 동무와 서무에 아국십팔현을 모십니다. 대성전에 공자, 사성, 아국십팔현을 모두 모시기도 합니다.

대성전을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大成殿일까요, 아니면 大聖殿일까요?

大成殿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한때 大聖殿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 원나라 때 공자에게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칭호를 올렸습니다. 이걸 줄이면 大成이 되기도 하고, 大聖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1453년(단종 1) 어느 날, 예조의 의견을 받은 의정부가 단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대성전(大聖殿)이라고 문묘의 액자를 썼으니, 명의(名義)가 함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대성전(大成殿)으로 고쳐 쓰게 하소서.” 단종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大聖殿이 大成殿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향교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 서원으로 갑니다.

서원의 구조

고려시대에는 서원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합니다. 서원은 민간에서 세운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원도 향교처럼 사당 기능을 겸했습니다. 사당에 주로 성리학자를 모셨습니다. 대개 한 분이 나 두어 분, 이렇게 소수 인원을 모셨습니다. 서원마다 모시는 인물이 달랐습니다. 전국 어디나 똑같은 인물들을 모신 향교와 다른 점입니다.

서원이 향교처럼 학교와 사당을 겸하다 보니 건물 배치 구조도 향교와 비슷했습니다. 교육 공간과 사당 공간을 나눈 것이죠. 서원의 사당 공간에 사당이 있지만, 동무와 서무는 없습니다. 모시는 인물이 소수이니까 동무·서무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서원의 교육 공간 중앙에는 강당이 있고, 좌우에는 향교처럼 동재와 서재가 있습니다. 강당은, 향교로 치면 명륜당인데 저마다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조헌을 모신 김포 우저서원의 강당 이름은 이택당입니다.

강당! 그러면 학교 행사하던 체육관 같은 게 연



총렬사 수직방



총렬사 전사청

상되지요? 지금은 그런 용도로 쓰이지만, 원래 강당(講堂)은 강학(講學, 학문을 닦음)하는 집(堂)이라는 뜻입니다. ‘교실+교무실=강당’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 총렬사에 명륜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여깁니다. 향교에만 있는 명륜당이라는 이름을 서원 격인 총렬사에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명륜당 기능을 하는 강당이 있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총렬사 강당도 고유의 이름이 있겠지요? 그 이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총렬사 전사청과 수직방

《속수증보강도지》(1932)에 따르면, 총렬사는 사당·강당·동재·서재·전사청·수직방·비각·창고·외삼문·내삼문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삼문과 내삼문이 있다는 것은 총렬사 공간을 서원처럼 사당 영역과 교육 영역으로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사당·전사청·수직방·비각·외삼문·내삼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강당·동재·서재·창고는 사라진 것이죠. 외삼문과 내삼문 사이에 좌우로 벌려선 직사각형 건물이 전사청과 수직방이라고 합니다. 성취당(成就堂)이라고 쓴 현판이 걸린 남쪽 건물이 전사청이고, 부엌이 있는 북쪽 건물이 수직방이라는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는 딱 동재와 서재인데 말이죠.

전사청(典祀廳)이란, 제사 용기를 보관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제사 때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규모 큰 서원에서도 전사청 건물은 자

그마하게 지었습니다. 정면 2칸에서 3칸 정도입니다. 지붕은 대개 맞배지붕입니다.

총렬사 전사청으로 말해지는, 성취당 건물은 정면 5칸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팔작지붕입니다.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고 좌우로 방이 있습니다. 전사청의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특히 현판 ‘성취당’은 전사청이나 수직방에 걸릴 수 없는 성격입니다. 왜냐. 成就堂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성취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는가? 학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취당’이 바로 총렬사의 강학(講學) 공간, 즉 강당(講堂)의 이름입니다. 김포 우저서원 강당이 이택당이고, 강화 총렬사 강당이 성취당인 것입니다.

다른 건물에 있던 ‘성취당’ 현판을 지금 건물에 옮겨 달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 성취당 건물을 총렬사의 강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사청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취당’ 현판을 다른 곳에서 옮겨 단 것이라면? 그렇다면 현 건물을, 위치상 서재(西齋)로 보는 것이 차라리 자연스럽습니다.

현판에서 成就堂이라는 글씨 왼쪽에 작은 글씨로 ‘生員金公孫留守鎮圭書’(생원김공손유수진규서)라고 새겼습니다. 생원 김공의 손자인 강화유수 김진규가 썼다는 의미입니다. 생원 김공은 김익겸입니다. 김진규의 조부인 김익겸은 병자호란 때 김상응을 따라 순절했습니다. 총렬사에 모셔졌습니다. 김진규가 강화유수로 근무한 시기는 1714년(숙종 40) 1월~1715년(숙종 41) 3월입니다. 따라서 성취당 현



향교 건축 배치 모형도(출처 두피디아)



성취당 현판

판은 1714년쯤에 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직방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직방(守直房)을 오늘날과 비슷한 용어로 풀면 숙직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수직방’이라는 호칭이 《속수증보강도지》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쓰지 않는 생경한 이름입니다.

강화 총렬사 수직방은 다른 서원들에 있는 고직사(庫直舍)와 같은 성격입니다. 고직사는 관리인이 거주하며 서원 시설을 돌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관리실쯤 될 것입니다. 서원의 핵심 건물이 아니라 부속건물이기에 서원 공간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총렬사 수직방(고직사)은 중심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규모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수직방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래 동재(東齋) 정도로 쓰이다가 교육 기능이 부실해지면서 수직방으로 용도 변경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수직방이 맞다면, 전사청과 겹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수직방과 전사청이 다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사청을 두지 않은 다른 서원들의 경우, 관리소인 고직사에서 제기(祭器) 보관과 제사 준비까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저는 고건축에 관해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성취당 건물은 강당일 것이다, 수직방은 수직방 겸 전사청이었을 것 같다, 주제님께 말했습니다.

앞으로 총렬사 건물 배치와 성격에 관한 명확한 분석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총렬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관심을 바랍니다.



총렬사(출처 강화군청)

기고

‘보수의 성지’ 강화, 왜 총선 후엔 항상 ‘빈손’인가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4월 10일 전국적으로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인천시 강화군은 중구, 옹진군과 한 지역구로 묶여 지역을 대표하는 1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보수라 일컬어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역 의원인 배준영 후보와 진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택상 후보가 다시 맞붙는다. 두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 한 차례 대결했다. 배준영 후보가 강화군의 ‘보수 표심’ 덕분에 승리했다. 당시 선거에서 강화군민은 배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져줘 그의 승리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배후보는 중구에서 뒤졌으나 강화군에서 2만4668표(60.89%)를 얻어 조후보의 1만4948표(36.94%)보다 무려 9700표를 더 얻어 당선됐다.

강화군은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게 절대적인 표를 몰아줬다. 지난 2022년 강화군수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유천호 후보가 1만7887표(47.33%)를 획득해 더불어민주당의 한연희 후보의 1만3379표(35.35%)보다 4500여표를 더 얻어 강화군수가 됐다. 2022년 3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만9267표(60.96%)를 획득해 1만7036표(35.4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윤후보의 당선에 강화군민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왜 강화군은 오랫동안 ‘보수의 성지’라 불리며 보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일까.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로 추리해볼 수 있다. 우선 강화군의 초고령화다. 강화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강화인구는 6만916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세부터 39세는 7269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하다. 40세 이상은 5만3000여명으로 무려 75%가 넘는다. 65세 이상만도 2만5345명으로 37%에 이른다. 한 마디로 젊은 층의 표심이 힘을 발휘할 연령 구조가 아니다. 주민들이 한곳에 머물며 오래 살다보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표심도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는 북한과 접경지인 지정학적 특성이다. 강화도 북쪽은 바로 북한이다. 육안으로도 매일 볼 수 있다. 민족의 아픔인 6.25 난리로 인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실향민도 적지 않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면 접경지인 강화군도 초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같은 심리적 긴장이 강화군민들에게 보수를 선택하게 만든다. 요즘같은 남북의 강대강 대치는 보수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셋째는 배타성이다. 강화도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연결로 맘만 먹으면 바로 오갈수 있어 단순 지리상으로는 섬이라고 볼수 없다. 그 옛날 날짜를 미리 살펴야 하고 뱃시간에 맞춰야 하는 불편함을 요구하는 외딴 섬이 아니다. 과거보다는 육지인과의 교

류도 많아졌고 강화군민도 수시로 육지를 오간다. 그러나 섬은 섬이다. 여행객은 많지만 강화도에 살려는 외지인의 유입이 쉽지 않다. 설사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려해도 강화도만의 텃세를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다. 인구 변화와 이동이 많아야 하나 강화도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주민들의 한번 정해진 표심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강화군은 선거 때마다 보수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면 강화군은 항상 대접받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에 띄는 공약조차 볼수가 없었으며 설사 공약이 있어도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지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제라도 강화도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가 강화를 위해 무엇을 공약했는지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도 강화군의 표심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번이 없는 한 보수 후보에게 많은 표가 쏟아질 것이다. 과연 표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표차가 얼마나 날지 강화도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중요한 건 총선이 끝나고 강화도에 조금이라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다.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 칼럼을 시작하며

내가면 황청리 멘토의힘 대안교육센터 지도교수 유담



필자는 2020년 1월 강화로 이주하기 전까지 독서와 토론 교육전문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학강의와 더불어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 교육청, 도서관 등에서 독서와 토론 교육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고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묘한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름 아닌 코로나팬데믹 사태가 저를 강화에 유배시켜 버린 것입니다. 독서와 토론중심의 숙박형 대안 교육을 꿈꾸던 필자는 내가면 황청리 바닷가를 앞 국수산 자락에 대안교육센터 건물을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꿈을 위해 모든 생활기반을 강화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에 곧바로 터져버린 코로나 사태는 전쟁이 벌어진 것과 다름없는 삶의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에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갑자기 단절된 외부와의 접촉은 문화 금단 현상과 우울증이라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화라는 땅에서 시작된 코로나 유배 생활은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온 단절의 코로나 공백 시간은 몇 년이 흐른 지금에 다시 생각해 보니 제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책하러 집을 나서면 뒷동산에 있는 ‘석각돈대’에 오르게 되고 눈 앞에 펼쳐진 망월 들판을 걷다 보면 ‘계룡돈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밭길 달는 곳이 모두 유적인 강화 땅은 우리의 삶을 역사의 관점에 볼 수 있는 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강화의 역사를 일구어 낸 강화의 인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외부와의 단절이라는 고통의 시간은 할 수 없이 책이라도 보

는 시간을 갖게 하였고 그 책들은 훌륭한 강화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중에 성재 이동휘 선생님의 전기를 읽게 된 것은 늦은 나이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강렬한 충격을 주었고 제 삶을 반추하게 만드는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 시절 그분이 닦아 놓으신 강화의 교육기반에서 조봉암 선생님과 박두성 선생님 같은 또 다른 역사적 인물들을 배출되었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전문가로 살아오려 애써왔던 필자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져놓았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는 더 이상 당신이 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질문은 필자에게 또 다른 환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 강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활동입니다.

그 시작은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인 2023년 3월

강화의 한 언론매체를 만나게 되어 ‘토론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칼럼을 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교육의 결과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공부재미있어지는 책 읽는 토론클럽이라는 ‘공책토론클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클럽은 지금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온라인교육과 월 1회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모든 시대적 사건을 담고 있는 지붕 없는 역사박물관 강화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최된 것이 ‘제1회 강화 청소년역사토론대회’였습니다.

2023년 7월에 시작하여 3개월 동안 4회에 걸친 사전교육과 세미나를 실행하며 9월 23일에는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결승전을 치르는 대장정의 토론대회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강화의 아이들을 만나보던 중 필자는 강화의 아이들에게 우선 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독서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책 읽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공통된 이유는 독서 훈련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자는 강화투데이 언론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유배 기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동휘 선생님의 전기를 읽게 된 것이 필자의 은퇴 후의 삶을 바꿔 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읽는 책 한 권 한 권은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있어야 누군가 그것을 보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 읽는 강화의 아이들’이란 표어는 강화 청소년의 독서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며 필자가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는 교육의 샘플을 봉사활동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적으로 9회에 걸친 글을 통해 독서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하며 이후에 나타나는 필요에 따라 더 구체적인 교육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강화경찰서, 신학기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강화경찰서, 신학기 대비 학교 내외 안전확보 위한 종합적 경찰활동 추진



과대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캠페인을 펼쳐주신 녹색어머니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교통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교통사고 없는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위한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 같은 날 13:00~16:00 아동안전지킴이·생활지도 교사·학교보안관과 함께 “아동안전지킴이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지역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 2. 28(수) 10:00~11:00, 강화경찰서에서 ‘24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임무, 주요활동사례,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조하는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4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갑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학기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안전교통과장, 교통관리팀장, 교통외근 직원, 녹색어머니회, 강화군청·교육지원청, 자원봉사센터, 갑룡초 교장 등 총 60명이 참여하여 등교시간대인 07시50부터 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통학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실시했다.

갑룡초등학교 교통캠페인은 매달 첫 등교일에 시행해 오는데 개학 첫 날인 금일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 등굣길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참석자 모두가 초등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행사를 가졌다.

■ 신학기 학교 내외 안전확보를 위한 종합적 경찰활동을 추진한다

- 학교 안팎 안전을 위한 다양한 경찰활동을 신학기 전후 집중적으로 전개, 관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 먼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하여,

- 관내 주요 초등학교에 등교시간대(08시~09시) 교통 및 지역경찰, 하교시간대(13시~16시)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스쿨존 및 주 통학로 상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개학 첫 날인 3.4(월) 07:50~09:00, 갑룡초등학교 앞에서 강화경찰서, 강화군청·교육지원청·녹색어머니·자원봉사센터·청소년상담센터·교육지원청 Wee 센터 및 협력단체(50여명) 등 한데 모여 “어린이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 학교폭력 및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을 지정, 3.4(월)~4.30(화),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합동 캠페인, 위기 청소년 관리 및 면담,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학교, 도서관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점검을 강화하여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 ※ 2월 中 강화군 내 도서관 등 학생이용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점검 실시하였으며 3월 학교 내 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남규희 인천강화경찰서장은 “학교안팎 안전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매월 1회 전문 의료인이 복지관으로 직접 방문 강화군노인복지관, 노년기 건강관리 의료건강상담 실시



강화군노인복지관 찾아가는 의료건강상담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이 지난 7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비에스 종합병원(병원장 김종영)과 MOU를 맺고, 2024년 건강한 노후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의료건강상담은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궁금증과 의료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전문 의료인이 복지관으로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전문 의료인은 어르신과의 1:1 상담을 통해 개인

신체 특징에 따른 노년기 질환 관리법과 운동법, 타 질환과의 연계성 등을 설명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윤심 관장은 “앞으로도 강화군노인복지관과 비에스 종합병원은 노인성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강좌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강화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문의 ▶ 강화군노인복지관 건강보건증진사업 ☎ 070-8892-9608

강화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뇌 건강 지키세요!

치매 고위험군 등 대상으로 '뇌 건강학교' 운영 / 오는 12일부터 1기 교육 시작... 현재 수강생 모집 중

강화군이 오는 12일부터 뇌 건강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70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뇌 건강학교의 참여자의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해 라인댄스, 독서, 난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 기수당 3개월씩 주 3회 진행되며, 현재 1기 수강생을 모집 중으로 3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예방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강화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뇌 건강학교 참여 희망자는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930-4098)으로 문의 가능하다.

- 서정진 기자



강화군치매안심센터 뇌건강학교

문의 ▶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 032-930-4098

오는 23일까지 청소년 동아리 참가자 모집

강화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응원합니다!

2024년 강화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모집

2024.03. 06.(수) ~ 03.23.(토)

모집대상 관내 9세~24세 청소년
* 1개팀당 청소년 5인 이상 구성 필수!
* 총 6팀 모집

모집분야 자신의 끼와, 재능, 진로 등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별 자율적인 동아리

신청방법 수련관 홈페이지 속 신청서 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접수->면접->최종결과 (mini9doo04@naver.com) (면접일 주후 개별연락합니다.)

활동혜택 1. 연간 청소년동아리 활동 경비 지원
2. 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는 수련관 장소 우선 제공
3. 또래 친구들과의 청소년시절 추억(동아리축제 등) 쌓기

필수사항 - 연중 10회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 동아리 연합회 활동 및 상·하반기 정기회의 필수 참여!
- 강화군청소년페스티벌 및 행사 2회 이상 참여-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강화군청소년수련관 문의 032-930-7152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23일까지 2024 청소년

동아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동아리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소질

을 발견하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다. 관내 9세~24세 청소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 경비와 장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동아리 모집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문의 ▶ 청소년수련관 ☎ 032-930-7152 강화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www.ghss.or.kr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책전문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